안정감 확보 백 프로 실패의 삶

(예레미야 49:1~39)

1.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은 어찌 됨이냐
2.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의 랍바에 들리게 할 것이라 랍바는 폐허더미 언덕이 되겠고 그 마을들은 불에 탈 것이며 그 때에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데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8. 드단 주민아 돌이켜 도망할지어다 깊은 곳에 숨을지어다 내가 에서의 재난을 그에게 닥치게 하여 그를 벌할 때가 이르게 하리로다

23.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라 하맛과 아르밧이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함이니라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도다

31.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일어나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을 치라

35.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의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36.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오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으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는 나라가 없으리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안정감 확보 백 프로 실패의 삶>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안정감 확보 백 프로 실패의 삶'
오늘은 무려 다섯 나라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우리는 각 나라에 대한 예언 중에서 해석의 열쇠로 생각할 수 있는 구절들만을 살펴보았습니다. 1~2절에서는 암몬에 대해, 7~8절에서는 에돔에 대해, 23절은 아람의 수도였던 다메섹에 대해, 31절은 아라비아 지방의 게달과 하솔에

대해, 35~36절은 엘람에 대한 심판이 예언되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이 땅에 휩쓸릴 때에는 보편적이고 지속적으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삶의 조건을 추구하게 됩니다. 땅에 휩쓸리는 것은 곧 세상에 매이고 정복당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갖고 싶은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주변에 인접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에 의해 마음은 땅에 휩쓸리게 됩니다. 이렇게 휩쓸리게 되면 결과적으로 삶의 안정감을 얻기 위해 평생을 소모하게 됩니다.
물론 안정감을 느끼는 기준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그 기준이 달성될 때에 느끼는 감정은 누구나 똑같습니다. “이젠 됐다! 이젠 안전하다! 이젠 걱정 없다! 오케이!”이런 식의 외마디 감탄을 나오게 하는 감정이 존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감정을 느끼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이런 감탄이 나오는 조건을 구비했더라도 성공이 아니고, 조건을 구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땅에 휩쓸려서 안정감의 토대를 확보하려는 모든 노력과 모든 시도는 무조건 100% 실패되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실패로 정해져있는 안정감 확보를 계속 시도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 한 사람의 인생 경험을 되돌아보는 것만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내가 움직이고 활동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안정감이 느껴질 때까지 무엇이든 밀고나가고 추구하고 시도하고 노력하게 됩니다. 안정감은 불안과 염려 근심 걱정이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땅으로부터 안정감을 얻으려는 시도는 무조건 100% 실패하도록 처음부터 정해져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한 삶의 모습을 다섯 나라에 대한 예언을 통해서 다섯 측면으로 조명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들에 대한 예언은 망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사실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이 나라들이 대표하는 특성은 땅에서 안정감을 얻으려는 사람의 마음의 형태를 대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다섯 나라의 멸망을 다섯 가지 유형의 실패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들 다섯 나라가 한 장에 묶여있는 것입니다.
먼저 이들 다섯 나라의 대략적인 위치를 한번 살펴보고 말씀을 시작해보고자 합니다. 요단강 동편에 있는 모압을 가운데에 놓고 생각해보면 편합니다. 암몬은 모압 북쪽에 위치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에돔은 모압의 아래쪽에 위치한 나라입니다. 한편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은 암몬보다도 북쪽에 있었고, 아라비아 지방의 게달과 하솔은 에돔의 남동쪽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엘람은 주변국들과 완전히 떨어져 바벨론 동쪽에 있는 먼 나라였습니다. 예레미야는 마치 물의 파동이 주변으로 퍼져나가는 것처럼 가까운 나라로부터 먼 나라를 짚어가며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첫 번째로 암몬에 대한 예언입니다.

1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은 어찌 됨이냐’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말감’은 성경에서 몰렉, 몰록, 밀곰과 같은 이름으로 등장하는 인신제사를 드리는 우상의 이름입니다. 요단강 동편에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있었습니다. ‘말감이 갓을 점령했다’라는 말은 말감을 숭배하던 암몬이 갓 지파의 땅을 빼앗았음을 의미합니다. 일찍이 앗수르가 북 왕국 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에 혼란한 틈을 타서 암몬이 요단 동편의 땅을 빼앗았습니다. 이 빼앗긴 땅이 바로 갓 지파의 땅이었던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요? 선민이 살고 있는 땅은 이방 민족이 살던 땅과 구분되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갓 지파의 땅은 물리적으로는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예루살렘과 떨어져있었습니다. 그러나 갓 지파 사람들은 선민으로써 항상 예루살렘 성전에 마음을 두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결과 망하게 되었지만 본래 이들이 가져야 하는 마음가짐만은 그러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마음을 두는 것은 곧 상번제의 생활화를 의미합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에서는 아침저녁으로 일 년 된 어린 양을 제물로 드리는 상번제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요단강 동편에서 살아가던 갓 지파 사람들 또한 이 상번제 생활화의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 장사를 업으로 하는 갓 지파의 사람이 상번제를 생활화한다면 “하나님! 저는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상번제로 드려지는 어린 양과 함께 죽은 자입니다. 지금 장사하는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선민의 땅은 이러한 기도를 늘 드리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땅입니다.

우리가 강조하는 십자가 생활화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선민의 삶은 구약에서는 상번제의 생활화였고 예수님의 시대 이후로는 십자가 생활화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이 죽으신 십자가에서 똑같은 모습으로 못 박히고 창에 찔리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채찍을 맞아서 살갗이 다 찢긴 상태가 되어 죽었음을 삶의 모든 현장에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죽었다는 것은 이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셔야 되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기도를 계속 해나가는 자들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의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갓 지파는 결국 말감을 섬기는 암몬에게 점령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영토를 빼앗겼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관하심과 계획을 몰아내고 차단시키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 휩쓸려서 안정감을 찾으려 할 때에 나타나는 첫 번째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닻을 올리고 마음을 정박시키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부활승천하신 주님의 동선이 닻줄이 되어서 올라갑니다. 이렇게 마음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정박하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내 발 밑으로 삶을 움직여 나가실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는 비로소 참된 안정감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땅에 휩쓸리면서 안정감을 찾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뜻과 통치는 차단되고 맙니다. 이렇게 하늘이 아닌 땅에서 안정감을 얻으려고 하는 시도는 반드시 실패합니다. 안정감은 절대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암몬에 대한 예언은 바로 이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에돔에 대한 예언입니다.

에돔에 대한 예언에서는 '지혜'라는 말이 반복해서 언급됩니다. 말씀드렸듯이 에돔은 모압 바로 아래에 있는 나라였는데 본문 7절에서는 에돔을 대표하는 데만이 언급됩니다. 이 데만은 욥의 친구인 엘리바스의 고향이기도 한 곳으로써 지혜자들의 성읍으로 알려진 곳이었습니다.

참 재미있는 점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먹은 에서의 후손들인 에돔이 지혜로 유명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혜'란 삶의 모든 순간에 궁극적인 소중한 가치를 깨닫고 이러한 가치관에서 행동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선민에게 있어서 장자권은 한 집안을 이끌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복된 계획의 통로와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러한 복을 일시적인 허기에 못 이겨 팔아넘긴 에서는 지혜 없음의 상징과도 같았습니다.

사람이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가치는 하나님이시며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발생하는 내 삶에 대한 생각과 판단입니다. 따라서 지혜는 하나님을 가장 좋게 여기는 마음으로부터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가장 좋은 하나님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계획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는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에서의 후손들이 세간에서는 지혜자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었다는 것이 참 모순적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의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라는 말씀이 떠오르는 대목입니다.

우리 속담에 "호랑이 없는 굴에 여우가 왕 노릇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호랑이가 없으면 여우라도 왕 노릇을 하는 것은 순리적인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문제는 호랑이가 엄연히 건재하고 있는데도 잠시 내 눈에 안 보인다고 착각해서 없는 것으로 여긴 여우가 왕 노릇을 시작한다면 그 결과는 뻔합니다.

최고이자 최우선의 가치이신 하나님을 제외한 상태에서 발동되는 모든 지혜는 그 자체로 어리석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암몬에 대한 예언에서 상번제의 중요성이 내포되어 있었던 것처럼, 에돔에 대한 예언에도 상번제의 중요성은 담겨져 있습니다. 에돔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뜻을 바라는 기도를 하는 대신에 스스로의 판단과 지혜로 안정을 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가치이신 하나님을 제외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지혜를 짜내려는 시도가 근본적으로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호랑이가 바로 뒤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우가 왕을 자처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의 삶의 안정을 빼앗는 첫 번째 요인은 나의 생각이고 지혜입니다. 삶에 대한 지혜를 짜내고 혹은 배우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제일 좋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지혜는 근본적으로 우스꽝스러운 어리석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빼놓고 말하는 지혜는 마치 사냥 끝에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장자권을 팔아넘긴 에서의 어리석음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좋은 가치로 여겨서 하나님으로 부자 되고 싶다는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는 세상에서의 삶을 위해 지혜를 짜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혜는 오히려 하나님의 모든 복된 계획을 차단시키는 어리석음이고, 이것이 100% 실패할 수밖에 없는 안정감 찾기인 것입니다. 선민의 지혜는 십자가 생활화에서 시작합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으니 나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통치와 계획만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은 하나님 품에만 안겨있게 해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나와야만 합니다.

세 번째로, 다메섹에 대한 예언입니다.
23절을 보면 다메섹에 대해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수리아라고도 불리는 아람의 수도였던 다메섹은 모압 북쪽에 있던 암몬에서 더 북쪽에 위치한 곳이었습니다. 다메섹은 역사적으로 근동지역의 교통 군사 상업의 요충지로 굉장히 번성했던 곳이었습니다.
문제는 이곳이 오늘 말씀과 다르게 바다와 전혀 인접해있지 않은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나마 제일 가까운 바다인 지중해와의 거리도 엄청났습니다. 지중해에서 다메섹으로 가기위해서는 두 번의 레바논 산지를 지나야 했고 이곳을 지나면 또 헬몬산이라는 큰 산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말씀에서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도다’라고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이 바로 마음이 땅에 휩쓸린 사람들이 안정감을 찾으려 할 때에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암몬에 대한 예언에서 나타난 것처럼 땅에 휩쓸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차단합니다. 그리고 에돔에 대한 예언에서 나타난 것처럼 자신의 지혜로 땅에서 안정감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혜는 어리석음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로 나타나는 모습이 다메섹의 특징인 것입니다. 바다에서 머나먼 곳에 살던 다메섹 사람들이 지중해까지 쫓겨 올 정도로 안정감을 찾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땅에서 이렇게 안정감을 확보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려 애썼는데 결국은 한 곳도 그런 곳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땅이 끝나고 바다가 시작되는 곳까지 마음이 내몰리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재벌이든 노숙자든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보기에는 돈이 많은 재벌들의 삶이 안정적으로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도 않습니다. 땅에서 안정감을 찾으려 했

으나 가난을 극복할 수 없었던 마음이 바다 끝에 서있는 것과 같습니다. 가난을 극복한 재벌의 마음에도 안정감은 전혀 없습니다.
국내 최대 기업인 삼성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세계 최대 기업이 되어버린 애플을 쫓아가야만 하고, 뒤에서는 중국의 기업들에게 강력한 추격을 받고 있습니다. 노심초사하면서 목숨을 건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 LG SK는 목숨을 걸고 광고를 합니다. 광고를 하는 것은 불안의 반증이기도 합니다. 이미 삼성의 제품이 좋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고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전혀 안정감이 없기 때문입니다.
24절을 보면 '다메섹이 피곤하여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 하니 떨림이 그를 움켜잡고 해산하는 여인 같이 고통과 슬픔이 그를 사로잡았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안정감이 없는 삶에 지치고 피곤해져버렸음을 의미합니다. 수고하고 노력하고 땀 흘려서 어떻게 하든지 안정적 조건을 확보하려고 하였으나 불안은 걷히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노후연금이 있으면 좀 안정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돈을 모아 은퇴하기 전까지 노후연금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안정이 되지 않습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문제들이 끝도 없이 터져서 마음이 쫓겨 다닙니다. 이것이 다메섹이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바로 하늘을 마음에 정박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이 땅에는 마음에 안정감을 주는 곳이 고작 한 뼘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아라비아 지방의 게달과 하솔 민족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들은 에돔의 남동쪽에 위치한 지역에 살고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희한한 예언이 주어집니다. 31절을 보면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을 치라'고 하였습니다.
이들은 사막에 거주지를 두고 낙타를 통한 무역으로 생필품을 조달하고 유목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던 자들이었습니다. 사막 곳곳의 풀밭을 찾아다녔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들을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이라고 표한한 것도 이와 같은 이유입니다. 이들은 사람들이 즐겨 찾는 도시나 거주지에 모이는 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이 몰리는 곳에서 안정감을 찾으려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반대로 사람이 없는 곳에서 안정감을 찾으려 했습니다. 방법은 달랐으나 목적은 똑같이 이 땅에서 안정감을 찾기 위함이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오늘 말씀을 보면 모압을 중심으로 북과 남이 대치되는 형식으로 이방민족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다메섹은 교통과 상업의 요충지로 매우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한편 이와 대비되는 게달과 하솔은 이러한 번잡함을 피해 다니는 민족이었습니다.
우리나라로 비유하자면 다메섹의 백성들은 서울 도심에 사는 사람들이고 게달과 하솔의 백성

들은 귀농하거나 전원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복잡한 도시를 좋아하든 한가한 시골을 좋아하든 마음이 땅에 휩쓸리고 있음은 마찬가지입니다. 땅에서 안정감을 찾고 누리려는 모든 시도가 불행으로 끝날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시골에 내려가서 전원생활을 하면 마음에 안정감을 되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땅에 휩쓸리는 한 안정감 얻기는 100% 실패할 것입니다. 시골에 살든 도시에 남아있든 그것은 마음을 하늘에 정박시킨 후에 하나님이 결정하실 일입니다. 마음이 땅에 휩쓸린 상태에서 안정을 찾아보겠다고 시골로 간다한들 안정감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시골을 안정되게 느끼는 것은 도시의 삶에 지쳤기 때문이지 정말로 시골에서 안정감을 누릴 수 있다면 도시로 올라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안정감을 누리는 유일한 방법은 마음을 하늘에 정박시키는 것뿐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따라 마음을 하늘에 정박시키기만 하면,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움직여 가실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거주한 곳이 도시든 시골이든 평강의 삶은 진행되어갈 것입니다. 땅에 휩쓸린 상태에서 안정감을 찾으려는 시도로 시골을 향해봤자 결코 안정감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로, 엘람에 대한 예언입니다.
35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의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라고 하였습니다. 엘람은 활을 잘 쏘기로 유명한 나라였습니다. 엘람은 이후에 바사에 의해서 정복당하게 되는데 36절을 보면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오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으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는 나라가 없으리라'라고 하였습니다. 성에서 화살을 마구 쏘는데 하늘에서 바람이 불어와서 이것을 다 흩어버려서 실패하고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지리라는 것입니다.
활은 이 시대에 사용된 무기들 중에서 칼이나 창과는 다른 '거리'라는 특성을 가진 무기였습니다. 칼과 창 밖에 없다면 나가서 서로 몸을 부딪치며 싸워야하지만, 활을 잘 쏠 수 있다면 피해 없이 성을 방비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사방에서 바람이 불어 이 화살을 무효화시키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 취업준비생이 안정을 바라며 "철밥통 직장에 취직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노력 끝에 실제로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안정감은 생기지 않습니다. 이것을 거점으로 삼아 나아가야만 하는 다음 단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본성은 활을 쏴서 멀리 있는 적을 죽이듯이 거점을 확보하고 나면 그로부터 다시 확장을 시켜나가고자 합니다.
수험생 자녀를 둔 부모는 자녀가 서울대만 들어가면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뜻대로 자녀가 서울대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안정감을 누릴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

다. 이제 서울대를 거점으로 해서 다음 목표에 활을 쏘고자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엘람에 대한 예언은 이렇게 인생에서 마련한 모든 거점들이 다 허물어지거나 오히려 앞으로의 삶에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아는 집사님 중에 학력고사에서 전국 150등을 해서 서울대 문리대를 들어간 분이 있었습니다. 머리가 좋으신 것은 당연하고 다른 능력도 아주 많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이 하시는 고백이 "전국 150등 때문에 제 인생은 망했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어디를 가나 우수해야만 한다는 구속으로 생각의 자유를 잃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서울대에 들어갔다고 해서 좋아할 필요가 없습니다. 서울대는 삶의 안정을 위한 거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삶을 후회하게 될 원인을 끌어안게 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엘람이 성을 거점으로 삼아서 활을 쏘며 영향력을 확장시켜 나가려고 했지만 바람이 이들을 흩어버리듯이, 우리가 삶에서 거점으로 삼으려하는 대상들은 실제로는 결코 거점이 되어주지 않습니다. 거점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거점을 확보했다고 해서 안주할 수도 없습니다.
취직이 안 된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도 없고, 고3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서울대 연대 고대에 들어가야만 한다는 생각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어차피 자녀들의 인생이 안정권에 들어가는 토대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학을 못가더라도 마음이 하늘에 보내지면 안정감은 생겨납니다. 그렇게 마음이 하늘에 정박해 있는 동안 발밑의 삶은 하나님의 복되신 뜻과 계획들로 진행되게 됩니다. 결코 스스로의 발걸음으로 세상을 걷는 삶이 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어떤 안정감의 토대도 없으며 더 큰 안정감을 추구하기 위한 거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 마음의 안정감은 하늘에만 있을 뿐입니다. 이 땅의 삶은 하나님께서 움직여 가시는 것이지 내가 걷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늘에 정박할 때에 하나님으로 인해 항상 기쁨을 누릴 것이고, 하나님을 제일 크게 보며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될 것이며, 발밑에서 땅의 삶이 움직여가는 것을 보며 범사에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땅에서 안정감을 확보하는 것은 무조건 100%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러한 삶을 중단하기 위해 십자가 생활화에 목숨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십자가를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내 사건으로 인정함으로써 진정한 안정감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순간마

다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럴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발밑에서 움직이는 삶에 대해 감사로 일관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